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복·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밭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4월 9일(수) 제 3072호

전주시 BRT 중투위 통과 '급물살'

기린대로 BRT구축사업
조건부 승인 최종 통과
오는 8월 착공 예정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간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추진중인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BRT 위치도. <사진=전주시>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추진중인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일차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 및 시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기린대로 BRT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북자치도의 실시계획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백교)의 9.5km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48억5천만원으로, 이중 50%를 국비로 확보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기린대로에 BRT가 도입되면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 높은 버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앙정류장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이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단계 심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정류장 설치 계획 마련 등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심사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BRT 도입은 단순한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재편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하고, 12회의 간담회와 66회의 설명회, 3회의 시민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 기린대로 BRT 설계(안)를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기린대로는 전주시의 대동맥으로, 이 도로 위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BRT 도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 공사 단계에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이재명 대표 오늘 사퇴 다음 주 출마 선언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 대선 준비에 돌입하기 위해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직무대행 체제 김두관 출마로 당내 경선 선관위원장 이춘석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다음 주 중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대비한 캠프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선 캠프에는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한병도·박수현 의원이 경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진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선관위원장에는 4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입틀막' 의원 진보당 강성희, 대권 도전

전주을 前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남북수교로 평화 한반도"



'입틀막'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강성희 진보당(전주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진보당>

'입틀막'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강성희 진보당(전주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내란의 종식은 일상의 폭력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청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북한과 '남북수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는 "개헌으로 주권과 평등의 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시기와 절차>는 이번 대선에서 '2026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선 전 개헌 공약이 대

선 후 휴지 조각이 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처럼 이번 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1년간 논의 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취지다.

개헌 내용으로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약속하며 △주거, 교육, 의료, 돌봄, 일자리, 먹거리 6대 국가책임제 실현을 통한 복지국가 △노동·농민·지역 일자 헌법과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평국가 △평등헌법을 통한 차별없는 공존국가 △생태환경헌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국가 △균형발전 실현하는 지방분권국가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대선구제 완전 비례대표제, 의회 책임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주권자 중심의 민주국가 △통일 지향의 평화국가 등 7개항의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현대차에서 택배현장 비정규직까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2023년 4월 전주를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졸일 것은 윤의 입기' 피켓으로 윤 탄핵의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에서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로 '입틀막'을 촉발시키며 반윤투쟁에 앞장선 대표적 정치인이다.

강 전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지난 2023년 4월 전주를 재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패하면서 원외가 되었다.

/서울=김영목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조배숙 의원 도당위원장 사퇴” 마땅

“카파면 반대 행위자들 당헌당규 따라 적의조치”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헌법위반 계 협령에 대해 따가운 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전북자치도 민들의 일상을 무너트리고 국제사회 비민주주의 지표 결과를 만든 윤(尹)의 비행에 “윤 파면됐을지라도 사법적 불법행위 책

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힘당 잘못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후보 자격이 있느냐” 따지듯 말하며 “치절한 반성속에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적의조치가 필요하다”며 “육신보다 도민 용서가 우선이다”고 크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을 통한 이 의원은 “당리당락 만을 위한 궤변과 권력에 눈멀어 양심을



이수진 도의원

저버린 몰염치한 자들이 대선후보에 나서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수레바퀴일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뿜었다. 조배숙 의원을 향한 소리는 기자 질문에 이수진 의원은 “예외일 수 없다. 이번 파면에 따른 체포영장 저지 의원들 모두 사법적 책임 및 사과의 태도 가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없어야 한다 등

/김영태 기자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형배·이미션 후임 이완규·함상훈 지명 민주당 강력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동의과정을 모두 마친 마은규 대법관을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열흘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

제청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현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협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지명권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기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

이라면서 한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세력의 현재 장악 시도”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장문을 통해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 받지 않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록 기자

‘전북형 SOS 돌봄’ 46,097 영유아 틈새보육 해소

전국 최초 24시간 돌봄 제공 전북자치도가 영유아 돌봄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902개소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에게도

틈새 돌봄을 위해 2014년부터 시간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운영해왔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보호자 필요시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최대 저녁 6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야간 시간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곳이 없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기존 시간제 보육의 이용 대상과 이용시간을 확대해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모든 영유아 46,097명에 대한 빈틈없는 완성형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울해 익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난 1일 ‘딩동댕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는 사업 홍보, 돌봄 공간 준비, 익산시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올해 중반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자치도>

‘일회용품 없는 전북’ 재사용 문화 확산

김제·순창 등과 자발적 협약 다회용기·다회용컵 도입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가 ‘일회용품 없는 전북’ 위한 재사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실천 가속화 위한 ‘일회용품 없는 전북’ 실현을 위해 8일 △김제시 △순창군 △국민연금공단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발적 협약(2차)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관 대표들이 참여해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 촉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관별 주요 실천 계획에는 △(김제시) 전국 최초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 추진 △(순창군)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도입 △(전북현대모터스FC) 전

국 최초 K-리그 다회용기 사용 △(국민연금공단·현대자동차·전북은행) 기관 내 카페 다회용컵 사용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축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 축제 다회용기 사용 선도 모델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9월 개최될 ‘김제 세로보미 축제’를 제로 웨이트 컨셉으로 기획해 친환경 축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전북현대모터스 FC는 전국 최초로 K-리그 경기장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스포츠와 환경 보호가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회용품 없는 전북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민간기업, 도민이 함께해야 한다”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산림기능인 애로사항 청취·제도개선 논의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전국국유림영림단체협의회 김관중 회장 등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산림기능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을 기획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윤준병 의원과 김관중 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주된 의제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병재 순천향대학교 산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림영림단 안전사고는,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업 종사

자들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임에도 제도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고령화된 인력이 전기톱을 사용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계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전기톱 대신 고성능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작업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청년 유입이 증가해 고통과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서 전국국유림영림단체협의회를 전담하는 만큼, 협회의 심부름꾼이 돼 일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새한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굴착공사 신고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에 굴착공사를 하거나 하는 등, 굴착공사정보시스템(EOC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www.noc.or.kr
 모바일 m.noc.or.kr
 전화 1644-000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4급지는 가스42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스안전수칙

사용전 실내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사용합니다.

사용중 정화확인

정화할 때에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 합니다.

사용후 밸브잠금

사용 후에는 연소기 정화스위치, 콕크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평상시 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용매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점검 합니다.

더 편리한 요금 조회, 납부

이제 가스비는 가스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요금 확인

번거로운 지로 납부 대신 3초 간편 결제

불편한 검침원 방문 대신 몇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비대면 자가검침 방문서비스 예약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전국 24시간 24시간 17층 (주식) 대표전화 : 063)440-7100

고객들의 편이 중심을 위하여 2019년 5월 23일부터 A88444를 4명까지입니다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강화

**사업비 26억원 투입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안전망 구축**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각지대 없는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강화를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3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26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등 지역사회 내 거주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돌봄군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으로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급외 A·B·노인맞춤돌봄 중점 대상자이며, 자체 유형으로 △재가 사각지대 대상자를 포함한다. 또한, 올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통합관정조사를 통해 기존 지자체 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의료, 요양, 돌봄욕구의 종합관정으로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년 75세 이상 전수조사 실

시 이후, 매년 75세 도래자를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필요한 돌봄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복지지원 발굴·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례로 전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28개 분야, 246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해 노인 의료-돌봄 대상자 중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이·미용 봉사 및 방문 인생사진, 마음돌봄 호스피스 등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기존에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봉틀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규자원 발굴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산재된 기존 복지서비스 중 활용성 높은 자원을 취합 및 현행화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연계하는 등 통합돌봄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확대와 통합관정조사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신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9명 임명

전주대학교 소방업무 관련 전공특기 학생들로 구성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역 안전 문화를 선도할 2025년 신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원 9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 안전문화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젊은 대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의용소방대 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민간단체·공직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14개 시군 공직자 실행력 강화
도민 공감대 확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민간단체 및 14개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및 특례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이번 역량강화 계획은 출범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개 시군 공직자 등 '역량강화 교육' △14개 시군 공직자 '성공화 아카데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다. 14개 시군 공직자 등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3월 21일,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 30여명 대상으로 1기가 시작됐

으며, 향후 출연기관 임직원, 공직자 교육이 각 1회씩 예정돼 있다. 또 14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성공화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 기간 중 4기를 운영한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특례 발굴 방법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다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단체와 연관된 특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 '전북4-H연합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청 강미순 자치제도과장이 강사로 나서서 첫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오는 25일 도청에서 '제10기 전북 생활공간정책참여단'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미순 자치제도과장은 "전북자치도



가 출범해 현재까지 탄탄한 제도적 성과와 함께, 향후 현실성 있는 실행력을 갖춰 추진하는게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 전주시지부, 전주함께라면 동참 라면 3천개 기부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8일 전주시에 1인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하면서 라면 3000개를 후원했다.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면카페 공간을 통해 따뜻한 라면 한 끼와 함께 일상

의 소소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전주청소년센터, 청년식탁 사잇길에서 라면카페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부된 라면 3000개는 전주함께라면 공간 8곳을 찾는 이용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하양진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전주함께라면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함께라면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회복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전주함께복지 사업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전주시지부는 지난 2월 열린 '전주함께라면' 추가 개소식에서도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재근 기자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 출범 식목 행사

새만금청, 유관기관 합동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일 개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이날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개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역사가 담긴 개화 옛 방조제길에 곱빛



과 유쾌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플로깅, 해양 업무이클링, 나무 지킴이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가 펼쳐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를 통해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의 개발을 목표로 민·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새만금을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개화 옛 방조제에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 출범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면서 "새만금에 친환경으로 특화된 경관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올해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업체당 최대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 △휴업업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 무인점포 대상 화재안전조사

70개소 중 35% 조사대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8일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덕진구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화기 미비, 관제인 부재 등 무인점포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 가운데, 이번 조사는 법적 기준에 따른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덕진구 내 무인점포 70개소 중 약 35%에 해당하는 40개소이며, 2024년 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점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전주덕진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전기 설비 관리 실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며, 이는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현재 덕진구 내 무인점포는 총 70개소로, PC방, 코인노래방, 세탁소, 커피숍 등 다양한 업종이 있으며, 21개소는 2024년에 신규 개업한 점포이다. 조사결과가 이 중 3개소는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치명령을 통해 시정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무인점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응 공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인과 운영자들이 평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경찰청, 봄 행락철 맞이 특별 교통관리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추위에 움츠리고 있던 봄꽃이 만개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전북 도내 각종 축제·행사장에 특별 교통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이해 지난 주말 정읍 전변과 임실 옥정호에서 진행된 벚꽃축제와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임실 옥정호 그랑폰도 위에서 스포츠 활동이 진행되는 행사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내달 말까지 도내 각종 축제와 행사에 경찰오토바이와 교

통경찰을 지원하고 모범운전자, 주최 측 교통보조자를 행사장 주변에 배치해 우회로 안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이해 지난 주말 정읍 전변과 임실 옥정호에서 진행된 벚꽃축제와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임실 옥정호 그랑폰도 위에서 스포츠 활동이 진행되는 행사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내달 말까지 도내 각종 축제와 행사에 경찰오토바이와 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기준 완화해야”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국토균형발전’ 핵심 중·소규모 집약형 산업단지 지정 가능토록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의 발전에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이 ‘기존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지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윤준병 국회의원은 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전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추천 접수

전기안전 기여자 발굴 작년 ‘은탑’ 김만섭 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025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추천을 오는 16일까지 받고 있다.

전기안전관리 포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관리 등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단체)를 포상해, 국민 전기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 김만섭 부사장이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SK하이닉스 김만섭 부사장은 무사고 3276일을 기록하고, 협력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힘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은탑산업

훈장 1건 △산업포장 2건 △대통령표창 4건 △국무총리 표창 6건 △산업부장관 표창 35건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표창 50건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부 상의 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5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대상자는 △전기안전관리 및 제도 정착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고 예방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향상 및 보급 활성화 △ 전기안전 홍보·계몽·교육 등에 기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추천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제28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 기업사랑도민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금융·법률 전문 분과 운영 기업 애로 해소 총력 서류 간소·금융 접근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가 회원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구축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사랑도민회 회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200여 명들로 구성됐다.

윤방섭 기업사랑도민회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회원사들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위기에 놓인 회원사들의 기업 성장을 위해 각 경제 활성 전문가를 구성해 회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곳곳마다 지원 대책을 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회원사들의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금융지원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금융 분야 역량을 최우

선으로 뽑았다. 윤방섭 회장은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금융지원을 받고서 서류 등 복잡하고 답보나 신용 적용을 높고 엄격하게 적용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법률 세제 부분에서도 변호사 회계사들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방섭 회장은 “현실은 IMF 시기보다 경기가 더 어렵고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없으면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 8일 신협중앙연구원에서 진행된 ‘2024년 공제시상식 및 2025년 비전선포식’에서 전북지역본부 2년 연속 신계약확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됐다.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전북본부, 공제사업 최우수 2연패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8일 신협중앙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진행된 ‘2024년 공제시상식 및 2025년 비전선포식’에서 전북지역본부 2년 연속 신계약확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제사업 추진에 대한 노고 격려와 2025년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조합과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는 신협중앙회 임원, 전국 12개 지역본부 직원, 수상조합 임직원, 수상자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시상식 및 비전 선포식, 3부 축하 무대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일반손해, 저축성, 보장성 공제실적에 대해 개인과 조합부문으로 나눠 수상하고 장기공제, 농·소형조합 달성률, 최우수지역본부, 공제판매량

등 12개 부문 총 70개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우수지역본부 2년 연속 선정 전북지역본부는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계약확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선정 조합부문에는 인후신협(이사장 김석기, 저축성대상), 고창신협(이사장 손영찬, 저축성 우수상), 전주대건신협(이사장 송각호, 일반손해 우수상), 전주성기신협(이사장 신용균, 일반손해 우수상), 예수병원신협(이사장 주명진, 장기공제 달성률 우수상, 농·소형조합 달성률 우수상), 진안군청신협(이사장 양철승, 장기공제 달성률 우수상)으로 6개 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개인 부문에는 전주중앙신협 주지형 전무, 황등신협 박현정 전무, 함열신협 윤철희 과장 공로상, 인후신협 김해리 주임이 저축성 전국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수상자로서 자리를 빛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간척지 3,881ha 사료작물 기른다

농업법인 96곳 공개 선정 농가 소득·간척지 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오재준)은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간척농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간척지에 3,881ha 규모 사료작물 이타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호밀, 청보리, 사료용피, 사료작물 중 단년생 식물로 ‘갑’(사슴단과) 협의된 작물 재배를 추진한다.

‘25년도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4년도에 추진한 시범구역 461ha를 제외한 총 3,881ha(10개 공구)를 추진하며, 총 96개 구역(구역당 평균 40ha)에 대해 해당 사업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의 피해 및 일반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선정방식은 서류검증 후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시사용료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농업법인은 약 1년간 일시사용 영농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사료작물 재배 영농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오재준 단장은 “사업준공 전까지 사료작물 재배 추진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업법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논 재배 전략작물 7종 핵심 재배기술 배포

재배기술 자료 173곳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논 재배에 적합한 ‘전략작물’ 7종(콩, 옥수수, 참깨, 들깨, 팥, 녹두, 사료용 벼)의 핵심 재배 기술을 정리, 안내 자료로 제작하고 농촌진흥기과관과 농업인 단체 등 173개소에 배포했다. 농업축산식품부는 밥쌀용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 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

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전략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2025년 하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품목은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참깨, 들깨이다. 안내 자료에는 배수 관리 기술을 비롯해 작물별 논 재배 적지, 적합 품종, 잡초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영농단계별 재배 요령과 재배력이 실려있다. 자료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략 작물 재배 기술교 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전략작물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생산단지와 농업인의 안정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 재배를 계획한 농업인은 작목 선택 전 재배 적지와 논 재배 적합 품종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전략작물 재배 기술 보급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재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논에서의 발작물 재배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논에 발작물을 재배할 때는 높은 두둑(고형) 재배, 배수로 설치, 배수 기반 시설 확충, 무굴작 땅속 배수 시공 등 배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침·관수 및 과습 피해 줄이고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국토안전원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8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 안전점검 및 체험형 이론·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임실군 신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장에서 열린 합동 안전점검에서는 건설현장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관계자가 참석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가설구조물(흙막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건설기계(이동식 크레인, 항타기)안전 등을 포

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이 진행됐다. 또 체험형 안전관리 교육에서는 건설사고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사고 처리 절차,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경험하며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동부권역 상반기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새만금, 서부권역, 금강권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8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 안전점검 및 체험형 이론·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한농공 전북>

김동인 본부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익산군산축협, 축산농장 방취립 조성

농협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지난 4일 익산시 함라면 함라축산농장(대표 김금수)에서 깨끗한 축산환경 구원을 위해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황금축배나무, 팬백나무 등 100여 그루 묘목을 식재하고 농장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취립 조성사업은 축산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 및 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실천을 통해 이웃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에 목적이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매년 축산농장 방취립 조성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37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축배나무, 팬백나무, 화살나무 등 2,600여 그루에 묘목을 공급해 4월 중순까지 식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집 조합장은 “농장주변 방취립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에 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학교 전기요금 336억 원...4년새 60% 폭등

<2024년>

전기요금인상으로 재정악화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은 약 336억 원이다. 4년 전인 2020년 211억 원과 비교하면 59.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도내 학교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은 4.28%로 4년 전과 비교해 0.46%p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20년 3.82%, 2021년 3.72%, 2022년 4.00%, 2023년 4.22% 지난해 4.28% 등으로 잠깐 하락세를 보였

지만 꾸준히 상승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과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자

료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장 자격 대상자 정책연수 운영

165명 대상 학교장 양성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초·중등 교장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도 정책연수를 7~8일 양일간 운영했다.

도내 초·중등·특수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165명이 참여한 이 연수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경영과 교육정책 이해,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학교장이 갖추어야 할 정책 이해 능력, 조직 내의 갈등

관리 및 소통 역량,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교육의 핵심 정책 방향과 연계된 실천 중심의 사례 중심 강연과 서거식 교육감과의 심층토론이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 과정에는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은 물론 일선 학교장의 실천사례 공유, 자율·책임 경영에 대한 리더십 특강 등 다양한 학습 요소가 포함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설계공모 투명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 '건축허브'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시설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설계공모 디지털 플랫폼인 '건축허브(Hub)'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구축된

건축허브는 2024년부터 설계공모 공고, 작품 접수, 심사위원 관리,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까지 건축설계 공모의 전 과정에 대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건축허브 도입 후 첫 사업으로 (가칭)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설계를 공모했으며, 총 3개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6일 교수, 건축

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작품을 평가하고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완주군 삼례초등학교 대지 내에 들어설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은 숲, 생태 공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실외 놀이터와 실내 체험시설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총 165억 원이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93㎡로

설립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축허브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시설 설계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건축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교육전문직원 55명 선발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유치원 12·초등 19·중등 24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교육전문직원 55명을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 분야는 유치원 12명, 초등 19명, 중등 24명 등 총 55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일반분야·전문분야 응시를 위한 교육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4년 이상인 정규 교원이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기간과 재외국민교육기관 등에 상근으



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며, 특수교사의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실근무 경력을 보직교사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석사·박사 학위 취득 실적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 적용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3일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를 거쳐 6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이끌고, 동료 교직원과 소통하며 노력한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나의 미래직업 만들기 챌린지 교육' 성료

'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 일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에 관심이 있는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나의 미래 직업 만들기 챌린지 교육'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 70여명의 학생이 참

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사업 중 하나인 '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굴한 신직업 정보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취업 경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 아름다움, 드론이 담는다!

4월 1일~10월 17일 개최
사진·영상 18점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가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전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영상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1일 관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도내 주요 시군에서 순회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으로 포착한 전북의 숨은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방문객들의 큰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 부문 우수작 '몽환의 옥정호' 등 15점과 영상 부문 우수작 '위대한 여정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등 3점이 공개된다. 각 작품에는 촬영 지역과 설명이 함께 제공되며 관람객들이 전북의 숨은 명소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북의 자연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전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제3회 '전북자치도 드



론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4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금 '역대 최대'

97억 확보 전년 대비 3.4배
"학생과 학부모들 부담 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연간 교부금을 전년 대비 3.4배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97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난해 대비 등록금 인하·동결 및 교내 장학금 지원 규모를 유지한 대학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대는 지난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부담 완화와 복지 확대를 우선 목표로 올해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24년 학부 교내장학금으로 2023년 수준인 120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선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대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인원과 지원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지난해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학생들이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금의 약 40%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큰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국가장학금 증액 확보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다양한 장학제도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수산인의 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성황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진행됐으며, 5일 동안 약 7,300여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총 1억 4,6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었다. 군산시는 행사를 통해 약 5억 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가 촉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실적 외에도 지역 전통시장,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효과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신선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감곡면서 열린 이등복지서비스 큰 호응

정읍시 감곡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가 열려 의료, 문화, 상담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8일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 대자인병원, 마음사랑병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감곡면보건의소, 감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공된 서비스는 의료상담·영양수업, 우울증 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네일아트, 귀보청각, 건강교육, 온열치유, 긴급복지상담 등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약 100명의 어르신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감곡면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거동 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지역 확대

익산시가 방문재활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을 함열읍을 중심으로 읍·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을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에게 스트레칭·자가운동 교육을 비롯해 △기초건강검진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한다.

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인구 수와 사업 대상자 수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중점지역을 선정하고, 지난해 장애특화차량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전용 차량 1대를 확보했다. 전용 차량을 활용해 월 1~2회 함열읍을 중심으로 읍·면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방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서군산체육센터, 서부권 체육중심지로

하루 평균 1,100여 명 이용을 하반기 공식 개관식 개최

군산시 체육진흥과는 8일 서군산체육센터(임사길14)에서 체육시설 준공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서부권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11월 준공된 서군산체육센터는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50억, 도비 34억, 시비 196억)을 투입하여 추진된 대규모 복합체육시설로, 부지 19,918㎡(축구장 포함 34,795㎡), 연면적 8,45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에는 ▲25m×8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어린이풀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소규모 운동실 및 회의실 ▲200석 규모의 수영장 관람석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축구장(인조잔디 1면)도 포함돼 있다.

센터는 2024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군산시 체육진흥과는 8일 서군산체육센터에서 체육시설 준공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군산시>

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2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꾸준히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총 22,39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시민 수요를 반영해 4월 한 달간 평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의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

/군산=지송길 기자

“견고, 짙고, 할인반자”...익산 중앙동 스탬프 투어

중앙동 관광지 3곳 방문시 금중제과 5% 할인 제공

익산시가 중앙동을 걸으며 여행도 즐기고, 금중제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걸어서 중앙동 속으로' 스탬프 투어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 8일 밝혔다. 중앙동의 대표적 명소 7곳 중 3곳에서 도장을 찍고 금중제과를 방문하면 5%의 할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근대역사관과 시민역사기록관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홀로그램 체험관과 익산청년시청에 위치한 '홀로스테이션'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동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과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번 이벤트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착수

이용자 중심 노선 개편 용역

군산시는 지난 7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영민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군산시 대중교통 정책추진 자문위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주)인 이앤씨 한우진 대표의 보고로 진행됐다.

올해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읍면 소재지로의 이동을 편하게 하고, 굴곡도(노선의 굽곡도가 높아질수록 통행시간 및 거리 증가)와 중복도(동일 버스 노선에 타 노선이 운행되어 중복되는 정도로 수요에 비해 노선이 과다 공급되어 비효율성 초래)가 높은 시내노선은 효율적 개편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고 차량 내 이동시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벚꽃축제 성료...15만 인파, 지역경제에 활력

1억 8천만 원가량 매출 기록

정읍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과 벚꽃로 일원에서 개최한 '2025 정읍벚꽃축제'가 사흘간 15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웰니스와 힐링이 어우러진 축제였다라는 평이다.

'낭만벚꽃, 낭만정읍'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최근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는 '웰니스'를 적극 반영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힐링과 위로, 그리고 낭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정읍시립농악단 공연을 취소하고, 개막식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행사 내내 이재민과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간식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20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5개소는 축제 기간 동안 총 1억 8,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도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이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플로깅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시에서 축제를 찾은 강 모 씨는 "벚꽃이 절정이라 풍경도 훌륭했고,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여성·청년 목소리 담는다

각종 위원회 인력풀 공모

정읍시가 시정에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력풀'을 내달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인력풀'은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사전에 모집·관리하는 인력은행 제도다. 기존 위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집은 여성과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지정

해, 정해진 위원회 구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경제·기업, 교육, 문화관광, 체육, 교통, 노동, 건설, 환경, 농축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사회복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험을 가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력풀 운영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시민마당'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여성위원 참여율을 현재 37%에서 40%로, 청년 위원 참여율을 현재 목표치인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2025년 사회조사' 실시

교육·보건 등 7개 항목

군산시가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표본 가구(1,005개) 내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상 및 의식 변화를 파악해 지역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전북도 및 군산시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교육 ▲보건 ▲의료 ▲주거·교통 ▲여가·문화 ▲안전 ▲도시·특성 항목(배달의 명수, 평생교

육 등) 총 7개 항목, 50여 개 문항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달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하며 조사 후에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6~10월에 자료처리 및 결과를 분석한 후, 12월에 확정해 보고서 발간 및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군산시 통계조사실(063-454-7932-8) 또는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4-2694)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민고 먹을 수 있는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익산시가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나선다.

익산시는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친환경 인증기관의 검사와는 별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검사다.

점검 대상은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0ha로, 논두렁 제초제 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될 필지는 생산 불가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재배 농가 교육을 진행해 생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수확기에는 행정·농협·생산단지 대표·민간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품질검사가 전제 면적에 대해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출하 여부를 판단한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탐마루 친환경 쌀은 익산시 학교급식은 물론 서울시 노원구·은평구·성동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연간 800톤 이상 공급되고 있다. 또한 SPC그룹(파리바게트)의 인기 제품인 '제주마음샌드'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 쌀을 공급하겠다"며 "익산시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 탐마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축산악취 해결 지역협의체 가동

실효성 있는 개선책 방안 논의

정읍시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추진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축산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는 정읍시를 비롯해 축산환경관리원, 순정축협, 생산자단체,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

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우수 사례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저감대책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악취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갈등 완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군, 월곡 숲길 정비 완료

도심 속 2.7km 산책 코스 1억2천만원 투입 야자매트·안내판 등 설치



고창군은 고창읍 월곡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2.7km 구간의 월곡숲길을 정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읍 월곡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2.7km 구간의 월곡숲길을 정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숲길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주변 자연 공간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계기로 전불 숲길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숲길로 거듭나기 위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산책 코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자매트, 안내판, 등산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급경사지에는 나무계단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활용도를 더욱 높

이고,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즐길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물질 사용 금지와 산지 정화활동 등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한국폴리텍대,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도모 기계장비관리·설비보전실무 20명씩 훈련생 이론수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와 함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 전북캠퍼스는 '기계장비관리'와 '설비보전실무'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하며 각 과정당 2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각 과정을 훈련생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중이며 과정에 참여한 한 훈련생은 "현재 이론 과정을 시작한 단계인데, 기초부터 체계

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남은 과정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4명 선정

산업 이화자·공익 오세준 문화 박선옥·애향 이진수 씨 수상 마실축제 개막식서 시상 예정

부안군은 지난 7일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산업·공익·문화·애향 등 4개 분야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해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이화자(행안면)씨, 공익분야 오세준(부안읍)씨, 문화분야 박선옥(부안읍)씨, 애향분야 이진수(서울 강북구)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산업분야 이화자씨는 부안군 향토음식 제1호로 지정된 음식집을 운영하며 부안 음식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해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한편 식품원료 90%를 부안 농특산물로 활용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분야 오세준씨는 부안군의원 재임 시절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를 최초로 제안해 실현했을 뿐만



이화자

오세준

박선옥

이진수

아니라 장애인 체육관 설치 등을 제안해 전북 장애인 정책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다.

또 대한노인회에 사랑의 지팡이 7년 차 3500만원 상당 기부, 출생아 지원 3년간 1명당 10만원 약 205명 지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년간 1억 4500만원 기탁 등 부안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선정됐다.

문화분야 박선옥씨는 어려울 때부터 국악에 남다른 재주를 보인 국악인으로 23년 전 부안에 박선옥국악예술민속연구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0년 6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가야금병창 보유자로 인정받아 우리의 전통국악 전승에 노력한 공이 높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애향분야 이진수씨는 고향 발전을 위

해 총 33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종합 레저스포츠 용품 제조 공장인 ㈜모터뱅크 신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했으며 상서면 재경향우회 회장을 역임해 2010년 상서면민의 날 최초 개최, 장학금 기부 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5년 부안군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주어지고 부안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부안군민대상에 선정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부안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적극 발굴해 부안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우리쌀 소비촉진 떡만들기 교육 운영

20개 기관·6백명 유아 대상 '찾아가는 체험 형식' 호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월 한 달간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쌀 소비촉진 떡만들기 식생활교육'을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인 유아들에게 우리쌀의 소중함과 전통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사전 신청을 통해 총 20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교육은 총 6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시간씩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은 총 6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시간씩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은 총 6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시간씩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며,

아이들이 익숙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체험 활동은 꽃산별 만들기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반죽

을 빚고 찌는 과정을 통해 우리쌀의 쓰임과 영양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쌀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쌀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떡이리는 매개체를 통해 놀이처럼 즐기면서도 식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요촌동 지역 기록물 전시

사진 등 약 290점 발굴 5월 10일까지 상시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동서9길 18(요촌 포켓공원)에서 지역 기록물 전시회 '요촌동의 옛 추억을 마주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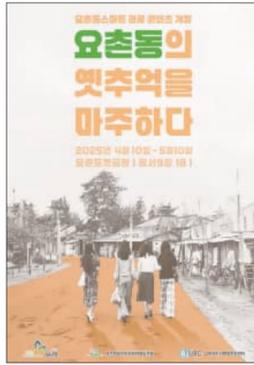
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상시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요촌동의 옛 기억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이 기록활동가 기록물 수집 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옛 사진 및 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 '요촌동의 옛 추억을 찾습니다'를 진행해 옛 사진 자료를 포함한 약 290점의 기록물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시회를 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서 기록물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김제 시민들에게 요촌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김제=온봉기 기자



다.

또, 이번 사업은 지역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과거의 김제 시민들의 생활 속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촌동 기록물 전시회는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기록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록수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억을 지키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경, 긴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경비함정 8척과 파출소 및 출장소 4개소를 대상으로 팀워크 훈련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기 인사로 배치된 신입자와 기존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응화돼 안정적인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함정에서는 인명구조 훈련과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을 포함한 17개 항목을 진행하며, 파출소는 관내 해역 특

성에 맞춘 지형지물 숙달 훈련 등 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관내 지형지물 숙지 여부와 각종 장비 숙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훈련했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련을 실천처럼 임하고,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258필지 경계 결정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복흥지구, 신태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부안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장이 지자체 두 곳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이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비율을 말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로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사업을 영위한 가운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는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오는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디즈니&픽사 영화음악공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꿈과 희망의 음악 여행 '디즈니&픽사 영화음악 FESTA'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국내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 단체인 서울페스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음악으로 꾸며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춤추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백은하의 유쾌하고 열정적인 지휘로 50여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정교한 무대와 환상적인 연주로 디즈니와 픽사의 매력적인 음악을 원작의 감동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피아노, 마림바 솔로, 그리고 유튜브 2,000만뷰를 기록한 디즈니 공주 사랑받고 있는 보컬리스트 이희주가 참여해 한층 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이언 킹', '겨울왕국', '알라딘'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옥같은 명곡과 '인크레디블', 'UP' 등 픽사 애니메이션의 감미롭고 웅장한 음악들이 오케스트라와 보컬리스트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더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음악여행을 선물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환경교육센터,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고창군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이 지난 7일 고산초등학교에서 첫 시지됐다.

교육은 지역내 유아 6개, 초등 13개, 중고 등 6개 학교의 77개 학급,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87회 진행돼 약 15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산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1~3학년 학생들은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웠다. 4~6학년 학생들은 '지구생활 놀이터' 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놀이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환경교육은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권 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고창군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7회 개암동 벚꽃축제' 성료 부안 상서면, 먹거리 중심 인기

부안군의 대표 봄꽃 축제인 개암동 일원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제7회 개암동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개암동 벚꽃축제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상춘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개회식 및 축하공연 등 주요 행사가 취소됐지만 먹거리 부스와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많은 상춘객이 개암동 벚꽃축제를 방문했다.

만개한 개암동의 벚꽃과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했던 먹거리 부스와 상서면 로컬푸드 판매장, 아이들을 위한 병아리 무료 나눔 등 문화체험프로그램 부스 및 만개한 벚꽃을 담은 팝콘 무료 나눔을 통해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상춘객들의 웃음소리로 축제장이 가득했다.

최기현 벚꽃축제추진위원장은 "산불 재난으로 인해 조용하게 진행됐던 개암동 벚꽃축제였지만 벚꽃이 만개해 많은 상춘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올 해 개암동 벚꽃축제를 진행하며 고생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95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출범

대학생 등 2천여명 참여 버스킹 공연 자원봉사도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춘향제의 시작을 알렸다. 작년 춘향제의 자원봉사자의 두배정도 되는 2천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만큼 현장은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8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춘향제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남원시>

△대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남원시는 작년 말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없는 남원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광주대, 전주대 등 인근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춘향제에는 협약을 맺은 대학교의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 자원봉사도 운영해 축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대, 원광대 등 4개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 현장점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시 문제점, 애로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봉사자-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로 총 4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람객 밀집공간을 사전에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인파 흐름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축제장 내 화장실, 쓰레기 방지지역 등 환경 취약지도 조사해 방문객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개최
남원시는 8일 제95회 춘향제 성공의

포문을 여는 디딤돌이 될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춘향제 기간에 동참할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원봉사 단장 위촉과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춘향제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특히 광주대학교 댄스팀 동아리의 축하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남원시는 8일 제95회 춘향제 성공의 /남원=정하복 기자



8일 순창군 풍산면 도치마을의 박동민(44) 씨가 논 2.7ha에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하며 뜻깊은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순창군>

순창 풍산면 박동민씨, 올해 첫 모내기

영기남 부군수 모내기 참여 순창군, 벼·콩 공동방제 지원

8일 순창군 풍산면 도치마을의 박동민(44) 씨가 논 2.7ha에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하며 지역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영기남 순창부군수는 직접 현장을 찾아 모판을 나르고 이앙기를 운전하는 등 모내기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수는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았다.

순창군은 3월부터 온탕소독기

운영, 벼·육묘상 상자처리제 지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벼 병해충 사전 방제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군비 23억원을 투자해 지역농협과 협력해 벼·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제업체 선정 시 관내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순창군의 벼 재배 계획 면적은 약 4,870ha로,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6월 중순까지 모든 모내기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성인문해교육 선정 디지털·생활 교육 확대 운영

순창군이 2025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4,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통해 학령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기초문해교육을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7개소, 생활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문해(영어) 교육은 2개소에서 신규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순창군청 행정과(063-650-1239)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대한노인회 완주지회 산불 피해 성금 기탁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회장 김영기)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영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7일 완주군노인회는 완주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4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기 회장을 비롯해 오영수 부회장, 김종중 삼례분회장, 소병준 비봉면 분회장 등 완주군노인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완주노인회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임원 및 완주군 관내 경로당에서 심심일반 정성을 모았다.

김영기 완주군노인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노인회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춘향제 '부당요금 근절' 협약...지역 상생 발판

친절·위생·가격 안정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한국요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이하 남원시요식업지부), 남원주요요리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춘향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일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 회원들은 동행 페스타(음식점별 가격할인 및 서비스 메뉴 제공 등), 숙박 요금 사전고시제 등에 동참하며 가격안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친절·위생·가격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 남원시요식업지부 위생교육 일정에 맞춰 부당요금 근절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일 협약을 맺고 음식·숙박 요금 등의 가격안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남원시>

결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위생·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관내 식품·공공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대학생 '천원 아침밥' 지원 매일 '매진 호응'

로컬푸드 활용...운영 본격화 식습관 형성·경제적 부담 완화

완주군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2025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을 본격화했다.

지난 7일 우석대학교에서 약 1000명의 아침밥을 준비해 1,000원 가격으로 제공했으며, 간편 음식과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량 판매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군과 이순덕 군의원,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던 시식품평화를 보안을 본격 추진되게 됐다.

기관 간 협업을 사회적 협동조합 양지뜰에서 메뉴를 개발해 우석대학교에 제공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학생들에게 제공될 메뉴는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김밥, 컵밥과 샐러드 등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간편식 식단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 강의가 시작되는 우석대학교 교양관 앞에서 배식 및 판매를 진행하며, 시식 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온라인몰 해외 판로 개척 모색

마닐라 교민협 방문 앞두고 홍보·판로 확대 전략 논의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7일 '완주물 소평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마닐라 코리안타운협회(회장 안일호)의 완주군 방문을 앞두고, 완주물의 판로 확대와 홍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닐라 코리안타운협회는 안일호 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필리핀 내 한국 교민 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위해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순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성 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필리핀 한인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완주물 제품의 홍보 전략,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완주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9월 마닐라 코리안타운협회의 방문을 계기로 협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완주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또한 "완주물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성·유이수 의원의 지난 해 필리핀 미나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200여 명의 현장 면담을 실시했으며, 마닐라 코리안타운 한인협회와도 교류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의료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따른 의료 지원 강화 예산 9천만원 추가 확보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 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지원 사업은 △노인 임플란트 △배내장 △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배내장 수술의 경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 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배내장 수술의 경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 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재개·노선 개편

KTX 시간 연계 교통 편의 증진 경유지 추가, 관광 접근성 향상

남원시가 정령치 지역의 관광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행하는 정령치 순환버스의 운영을 2025년 4월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출발해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로, 남원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도로 통제제한으로 인해 달군까지 단축 운행해왔다. 현재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하며 요금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이번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에는 여러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 KTX 남원역 도착 시간을 연계해 시간표 조정이 이뤄졌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경유지로 추가함에 따라 춘향테마파크와 김병종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일부 구간 심한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을 우려해 안전한 코스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승객 뿐 아니라 기사들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기타 자세한 운행노선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주)KCC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협약

주거 전반 개선 구체적 수행 지난해에도 6세대 지원 호응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주)KCC 전주공장(공정장 문병원),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정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완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으로 (주)KCC전주공장이 4,000만 원의 성금을 완주군에 기탁해 저소득 주거취약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KCC 전주공장은 성금 기탁과 함께 공사 대리점 추천,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 가정의 상호, 보일러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술으로 따뜻한 집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난해에도 6세대의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봄·광복 주제 정기연주회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예술감독 김종희)이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34회 정기연주회 '다시 돌아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청소년합창단이 봄의 따뜻한 감성을 담은 합창곡과 함께, 독립운동과 광복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선곡을 선보인다.

지난 3월 10일 부임한 신임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합창단원들은 섬세한 하모니와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예술감독은 "합창단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무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감동을 나누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과장은 "청소년합창단이 매년 수준 높은 무대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온 만큼, 올해 정기연주회 역시 기대가 크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연이 열리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좌석 예약은 남원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8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여성 직업 능력 개발 양성과정 개강

임실군(군수 심 민)과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이 지난 7일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2025년 임실군 여성 행정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출산으로 경력 단절 여성 및 미취업청년 15명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컴퓨터활용능력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여성 직업훈련 과정이다.

본 과정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엑셀 활용, 문서 작성하기, 직업윤리와 마인드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과정을 배워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인을 원하는 임실군 관내 기업과 연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향상을 위한 기회의 교육과정이다.

교육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총 28회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임실군청 5층 주민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농민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무주군이 명품 만년봉 사과 생산을 위해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열린 설명회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무주과수영농조합(대표 강만기)에서 진행한 것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1백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과수병해충 예방센터 장일 대표는 △최근 무주 기상 및 병해충 발생 현황, △최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 방법, △사과와 주외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요령 등을 공유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이상 기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해충이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 한 해 이상 기상 대응과 농작물 재해 경감 및 소득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 추진에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과 이상 기상 대응 피해경감을 위한 병해 예방 기술(요소, 분산 살포)지원, 햇빛차단망 지원, 통로형 저온피해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기술을 보급해 사과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계남면 지역 사회단체 릴레이 국토대청결 활동

장수군 계남면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3회 장안산 불나물축제'를 맞아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릴레이 국토대청결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계남면,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계남면 자율방재단, 계남면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주요 단체들이 참여해 축제 장소인 만남의 광장 주변과 관광지인 벽남제 일원, 주요 도로변, 하천 주변 등 각자 맡은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미화 작업을 펼쳤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가 됐다.

계남면은 장수IC가 위치한 장수군의 관문 지역으로 장안산 불나물축제는 매년 장수IC 앞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는 장수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명호 면장은 "계남면은 앞으로도 지역단체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설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광역교통망 확충 주력

최정일 부군수, '고속도로·철도·국도 사업' 국가계획 반영 위한 상호 협력 제안

무주군이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도로·철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정일 부군수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김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고속도로·철도 및 국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계획 총괄 부서를 방문한 최정일 부군수는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주~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예비타당성조사신청 등 절차 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하다"라며 "상호 지원과 협력이 토대

가 돼 영·호남 간 연결성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2036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접 광역권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천시에는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쓸 것을 요청했다. 무주 무풍-김천 대터 도로시설개량 사업 또한 제6차 국·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광주 남구, 고향사랑 상호기부 협약

교류 협력 상생 의지 강화 도시농촌간 협력모델 주목 임실 치즈제품 20% 할인

임실군(군수 심 민)이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진행돼 의미를 더했으며, 협약식에는 이진관 임실군 부군수와 박정환 광주 남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상생 의지를 다졌다.

양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는 물론, 상호 기부를 통한 지역 상생 모델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양 기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저변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관심 있는 타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담뱃값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임실군이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광역시 남구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사진=임실군>

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매도시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표 담뱃값인 '임실치즈·요

거트'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환 광주 남구 부구청장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관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자체가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의견 청취

제이디ENG 방문 현장행정 산업 협력 강화 약속 입주기업 간 연계방안 추진도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7일 진안 연장농공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제이디엔지니어링을 방문해 기업에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이디엔지니어링은 현대중공업 퇴직자를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진안공장은 2023년 12월 진안 연장농공단지에 입주해 국내외 중량구조물 운송부품 제작 및 운송된 중량물을 인양, 운송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이 날 공장장은 "제이디엔지니어링은 각종 ISO관련 인증 및 특허를 받은 전문 기술업체로 중량물을 인양 운송하는 기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는



고급기술"이라며 "최근에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 차폐 중량물 이송현장에 투입돼 작업 중"이라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관내 농공단지에서 열심히 산업 활동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공단

지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우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를 만들어 농공단지 내 기업끼리의 연계방안은 물론 군 추진 주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협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장수군은 8일 군청 전산실에서 '행정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원장 전정희) 주관이며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교육은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경력단절 여성 15명을 선발해 진행했으며 ITQ-한글기초 및 실무활용, 파워포인트, 엑셀기초 및 실무활용 등 이론수업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직무소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개강식과 동시에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이 개설했다.

여기에는 사무직 인력 채용이 필요한 △(주)복수 △장수레저(주) △(주)참고

린푸드시스템농업회사법인 등 5개 업체 일자리협력망위원회가 참석해 관련 분야 취업 활성화 및 취업처 확보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전정희 원장은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이운 선수, 전국체전 전북 대표 선발

진안 용담삼마클럽 유소년수마단 소속 선발전 1위 입상

진안 용담삼마클럽 유소년수마단(대표 이영래) 소속 임이운 선수가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임이운 선수(진안 주천중 2학년)는 지난 3월 장수수마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하며 장애물 경기 3명, 마장마술 2명을 선발하는 도 대표 선수에 최종 선발돼 전국소년체전 출전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임이운 선수는 3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진안군 유소년 수마단에 지원해 그동안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 다양한 근성으로 대회 출전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용담삼마클럽 대표 이영래는 "임이운 선수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더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미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도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사계절 담은 한글 동요·동시 특별전

김한태 문학관 특별전시실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시

무주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김한태 문학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한글 동요와 동시를 소재로 한 특별전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글 동요와 동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봄·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한 동요와 동시 16개 작품과 만날 수 있다.

무주군청 김한태문학관 최지향 학예

사는 "친숙하고 정감 어린 작품들을 통해 소중한 분들과 마음껏 나누고 각박한 세상을 버릴 힘도 얻어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김한태 문학관은 무주 출신의 비평문학자 김한태 선생의 생애와 업적, 작품과 유품들을 발굴·연구하고 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2, 3층에 걸쳐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등을 갖추고 김한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한태 비평 선집 등 다수의 저서와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개최

이주 25년만에 12일 첫 행사 조례 제정 이후 매년 4월 개최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물민들을 위한 만남의 행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용담댐 체련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는 수물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약 25년 전 용담댐 건설을 위해 진안군 8개 읍·면 68개 마을과 1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함께 생활했던 이웃들과 헤어지고, 농사를 짓던 농지와 산들은 용담호의 물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진안군의회 이미우 의원의 의원 발의를 통해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구성된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4월 두 번째 토요일 날을 만남의 날로 지정했으며 그 첫 행사가 올해 열리게 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용담호 속에 담긴 추억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영농철 대비 농업 기반 시설 점검

임실군이 본격적인 봄철 영농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내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총 157개소의 저수지를 포함한 관정,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 담수율, 구조물 안전성, 용수 공급 능력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용수 공급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

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저수지의 현재 담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용·배수로의 퇴적도 제거 및 보수, 담 진입로 정비 등 농업인 실사용 중심의 맞춤형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선제적인 정비와 점검을 통해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미디어아트와 합창이 만나는 '췌! 크릿 콘서트'

군산시립합창단이 제80회 기획 연주회 '췌! 크릿 콘서트'를 오는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통적인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우주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에 맞는 다채로운 합창곡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 좌석 7,000원의 유료 공연이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립합창단 사무국(063-454-5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평선농부들, 김제시에 흑삼 담은 생강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지평선농부들(대표 허지혜)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평선농부들은 1,000만 원 상당의 '흑삼 담은 생강' 7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평선농부들은 김제 황도밭에서 직접 생강을 재배하며, 마을 농가의 생강을 수매, 가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마을기업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박지원 변호사,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주민에 500만 원 기탁

범무법인 다지원 대표 박지원 변호사가 8일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500만 원을 기탁하며, 재난 속 온정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전북 아너소사이터의 82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1억 원을 완납한 고액기부자다. 박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며 사회적 귀감이 되어 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도·경기도자원봉사센터 상생발전 업무 협약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상생발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두손을 맞잡았다.

8일 진행된 자원봉사 활성화는 양 지역 간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네트워크 강화로 공익적 가치 확대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간 자원봉사 영역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지

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대응·복구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콘텐츠·사례 공유 △교육·교류 통한 자원봉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 인정·예우 상호 혜택△글로벌 자원봉사트렌드·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2월 상호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미래차산업, 관광산업 등 5개 분야 업무협약을 맺으며 총 13개 분야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경기도와의 상생 협력 항목에 전북사랑도민증도 포 /김영태 기자

거리의 천사 故권호석씨 유족, 장수군에 성금 기탁

환경보호 위해 평생 헌신

장수군은 '거리의 천사'로 알려진 故권호석씨 유족(권오용씨)이 장수군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권호석씨는 지난 50여 년간 장수 지역은 물론 전국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생전에 인과가 물리는 전국의 축제장과 행사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부의금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권호석씨 유족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고인의 평생 바람을 실현하는 의미를 담아 기부한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호석씨는 지난달 28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에 성금 기탁하는 유족과 장수군 관계자



(주)치얼업코리아, 익산 청소년에 생필품 후원

익산시는 (주)치얼업코리아(대표 신경석)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와 함께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필품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에어프라이어 등 생활필수품 43종(6,400만 원 상당)이다. 물품은 지역아동센터 47개소를 비롯해 스키점프하우스 △성애모자원 △1388청소년상담센터 △송학동 스아리더 대상자 등 총 52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치얼업코리아는 전자상거래 및 IT 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사업 성장과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번 후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귀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주)치얼업코리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벚꽃축제장서 유기견 18마리 입양

정읍시가 벚꽃축제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펼쳐 현장에 동행한 유기견 20마리 중 18마리가 새 가족을 만나는 따뜻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4일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 벚꽃축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소 홍보와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급증하는 유실·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입양을 통한 동물보호 인

식 개선과 유기동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에는 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20마리가 직접 동행했고, 현장을 찾은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18마리가 입양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동물보호소는 이들과 함께 보호소 홍보물품도 배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진안군 상전면 지사협, 행복한 짜장면 나눔 행사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석, 이하 지사협)는 8일 상전365화합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점심으로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상전면 어르신들의 특별한 일상을 응원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지사협 회원 16명은 새벽부터 모여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능숙하진 않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시 나포면 해곡마을,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군산시 나포면 해곡마을 주민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에 힘을 보탰다.

8일 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해곡마을 주민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을 돕기 위해 3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십시일반의 정성이 담겨 더욱 의미가 있다. 해곡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상황을 지켜보며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꼈고 피해민을 돕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 기탁

익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이용규)가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이용규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익산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 기여 의지를 담았다.

이용규 지사장은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체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 수칙

장시간 실외활동 지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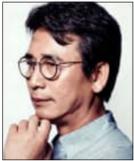
적정 습도 유지

짧게라도 자연 환기

면역 관리

물과채소 충분히 섭취

〈一事一言〉



나의 내란 진압 소감(1)

유시민
작가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했다.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경찰청장 등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군과 경찰의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이행했다.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 등은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4월 4일 현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순간까지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령 선포 행위를 옹호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으며 탄핵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헌법 파괴 행위를 지지하는 반체제 위한 정당임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겼다. 한덕수는 지금도 매순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따르라고 국민을 훈계했다. 국회가 다시 탄핵하지 않는다면 6월 3일까지 권한대행

자리를 지킬 것이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위반행위가 파멸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한덕수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헌법을 적당 선에서 위반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헌법의 효력을 사실상 중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행위였다.

윤석열 추종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공격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었다. 그런데도 지극인 판사는 '미법의 산수'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판사와 검사는 법을 어겨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는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현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횡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권력 남용 성향과 폭력성을 정의감의 징표인 양 포장했던 대부분의 신문 방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명분 삼아 내란 옹호세력에게 탄핵 추진세력과 동등한 발언권을 주었다. 어떤 언론사는 내

놓고 내란 세력을 편들었다. 자유로운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대다수 언론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독재정권이라도 자신의 이익만 해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태세다. 정치적 독극물 또는 사회적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이런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회학자 밀즈(C. W. Mills)는 군사·정치·경제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권력 엘리트(power elite)'라고 했다.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장관·장군·경찰청장·헌법재판관·판사·검찰총장·언론인 등이 다 거기 속한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계엄의 밤부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탄핵의 아침까지 122일 동안 우리는 한국 권력 엘리트의 '생얼'을 보았다. 그들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다. 대한민국은 살얼음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도 권력 엘리트도 다 변변찮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국토와 국가가 남북으로 찢어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까지 갈라졌다. 독재와 부패가 판치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세계의 모범이었고 지금은 영상예술과 대중음악으로 세계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변변찮았고, 권력 엘리트는 비루하게도 헌법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변변치 않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무엇이 있어서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온 무장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 시민들만 대단했던 게 아니다. 어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어떤 경찰 간부는 계엄사의 정치인 체포조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 지명한 것은 헌법적 금도를 스스로 짓밟는 폭거이자,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의 한계를 무시한 월권행위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인신의 정직성에서도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특히 이 지명은 파면된 윤석열의 '그림자'가 여전히 국가의 헌법기관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뿐 모든 대통령 권한을 전면적,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헌법기관 인사의 핵심인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의 정신과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지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입헌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무리한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도, 포석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명된 인물들의 면면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2.3 내란' 당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비공식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 공범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그는 내란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이러한 자가 헌법의 최후 보루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된다는 사

실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조롱이다. 이 지명이 윤석열의 정치적 연장선 위에서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완규 지명은 사실상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함상훈 판사의 지명도 마찬가지다. 그는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적 판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그 자체로 현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헌재를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야당의 반발은 당연하다.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민주당의 반응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경고이자,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필사적 호소다. 탄핵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같은 월권이 반복된다면 국회는 그에 상응하는 헌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지금의 헌정 질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절제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시험하지 말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심경암 석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미상
- 소재지 - 남원시 신촌동 124-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4월 9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시 010-3015-4791	익산지국 010-9560-3075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8626-6049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강으로 가서 꽃이여 / 김사인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이여 이마에 여윈 손 얹고 꽃이여	늙은 여뀌때 거친 종아리	시든 풀의 굽은 등엔 서리가 희리
어둡게 흘러가는 강가로 가자 어린 자갈들은 추위에 입술 파랗고	강으로 가서 우리는 강으로 가서 다만 강물을 보자 하늘엔 잔 별도 총총하리	취한 듯 슬픔인 듯 강으로 가서 다만 묵묵히 강물을 보자 이마에 손 얹고 꽃이여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반정부 유인물 배포 미수 사건'에 연루돼 74학번 동기들과 함께 구속됐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조정환,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남원시는 전북 동부권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그동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분만-산후조리원-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편집자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남원시는 전라북도지사와 시장 공약 사업으로 고죽동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41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이다.

해당 시설은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마사지실, 산모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예정이며, 2025년 9월 말 완공,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필수의료 강화

그동안 남원시는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남원시에는 주간에 진료 가능한 소아과 의원과 병원이 4개소뿐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 전주나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원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 야간진료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필수연계인 신생아 응급진료와 소아 야간진료의 중심이 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 어린이병원"을 통해 응급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체계 구축

공공심야약국 운영 적극 추진

제공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 심의하여 오는 6월 1일 정식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남원시와 인근 지역의 소아 환자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 소아 응급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야간 소아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365일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는 약사회 등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야간에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의료 인프

라 구축에 일환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 및 참여에 깊이 공감하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소아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불안이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 시간대 경증환자에게는 의약품 투약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슬땀

남원시는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과 인구감소지역·응급의료 취약지역인 98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실태를 자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남원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 반영이 되어 보건복지부 '2025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안에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필수 의료 강화 패키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 문제를 극복하고자 관련 부서와 소통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필수 의료 강화 패키지를 통해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남원시뿐만 아니라 순창, 임실 등 전북 동부권 지역의 소아를 둔 지역주민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관내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줄여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복지 향상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남원시는 필수의료 강화 노력과 관련된 준비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 시켜 시민들이 변화되는 의료 환경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청정 순창에서 봄나물 향연

찰뚝여행

2025. 4. 18.(금)~19.(토)

순창 양지천 일원(양지교 및 천변)

주최 | 순창군 주관 | 순창농협 후원 | 농협 순창군지부 · 동계농협 · 서순창농협 · 구림농협 ·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